

대·중기 양극화 해결 국가 재도약 최우선 과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국무총리·대선후보 등 신년덕담 통해 지원 약속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장관계·재계, 중소기업계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 9개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은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영상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하에 진행됐으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이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장관계·재계, 중소기업계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부겸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며, 중소기업계가 해법으로 제시한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신경제 3불 해소를 위해 정부, 국회 경제인들이 다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함께 했던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최근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이 모든 것이 노동계에 기술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며,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중소기업계가 적극 동참하

겠다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 윤석열 대선후보, 안철수 대선후보, 심상정 대선후보, 김동연 대선후보 등은 신년덕담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소기업양회 주최하고 있다. /최대희 기자

“농업인 소득 향상 위해 최선”

전북농협, 이기복·이창완 부분부장 임명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1일자로 농협중앙회 전북 지역본부 부본부장에 이기복 농협중앙회 기획실 조직전략팀장, 농협경제지구 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으로 이창완 익산시지부 농정지원단장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기복



이창완

익산 출신인 이기복 부본부장은 1996년 농협과 인연을 맺고 난곡지점에 첫 발령을 받은 이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촌지원부, 영등동지점, 기획실 조직전략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중앙본부에서의 오랜 근무경력

과 다양한 기획업무로 농협 내부에서 기획과 전략분야로 인정받아 왔다. 이기복 부본부장은 “지자체, 농업관련 기관·단체, 지역농협 등과 협력해 농업인 실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

며 “나아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농업인,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전북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완 부본부장은 전주 출신으로 1998년 농협에 입사해 장수군지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후 자곡부, 조합감사위원회, 전북양곡자재단, 익산시지부 농정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일선과 본부부서를 두루 경험해 대외관계와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창완 부본부장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유통채널 확대를 통해 지역농산물 판로확대에 힘쓰겠다”며 “이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해 농업인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LX-전주시 새활용센터

폐근무복 활용 디자인작 전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의 폐근무복이 가방·휴대폰 지갑 등으로 변신했다.

LX공사와 전주시새활용센터는 폐근무복과 전주시에서 버려지는 폐현수막과 비닐·한복 등을 모아 업사이클링(새활용)을 통해 일상용품으로 재탄생시킨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시되는 작품들은 LX공사가 2021 새활용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가방·사무용품·취미용품 등 2여 점이다.

공사는 업사이클링 제품이 폐근무복 처리 문제 해결과 기업의 환경비용을 절감하는 인식이조의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지역 한복업체들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판로 개척을 시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일까지 LX공사 본사 1층에서 이어지며, 2차 전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다시봄 센터에서 계속된다. /김윤상 기자



호남통계청 온라인 시무식

호남지방통계청(청장 김대호)은 5일,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은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김대호 호남청장의 신년사를 영상으로 중계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김대호 호남청장은 신년사에서 “작년 코로나19로 열악한 조사환경 속에서도 비대면 조사방식의 확대를 통해 통계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특화통계를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호남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비대면 조사방식의 안정화를 통해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역통계 기능을 더욱 강화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신품종 ‘홍산 마늘’ 김치 양념에 ‘제격’

기존 품종보다 기호도 높아 발효 천천히 진행 유통 유리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재배하기 쉽고 수량이 많아 인기를 끌고 있는 ‘홍산’ 마늘이 김치 양념용으로도 합격점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2017년 개발한 ‘홍산’은 특유의 기능 성분(클로로필)을 함유해 끝부분이 초록색을 띤다. 2020년 전국적으로 약 200헥타르(ha)에서 재배됐으며, 올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진청은 ‘홍산’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에 의뢰해 김치 양념으로써 ‘홍산’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홍산’ 마늘을 넣은 김치는 김치 양념용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남도 마늘을 넣은 김치보다 전문가 기호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능평가 전문가 15명이 김치 맛을 평가한 결과, 김치를 담근 직후에는 ‘홍산’ 마늘을 넣은 김치와 남도 마늘을 넣은 김치의 맛 차이가 없었다. 2주 뒤 알맞게 숙성한 ‘홍산’ 마늘을 넣은 김치의 종합적 기호도는 평균 5.7점(리커트 7점 척도)으로 나타나 남도 마늘을 넣은 김치(4.8점)보다 높았다.



김치의 숙성도를 나타내는 산도(신맛) 측정 결과, 2주 숙성한 ‘홍산’ 마늘을 넣은 김치는 0.57% 남도 마늘을 넣은 김치는 0.77%로 확인됐다. ‘홍산’ 마늘을 넣은 김치의 발효 속도가 천천히 진행돼 김치의 독특한 맛과 풍미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김치 발효에서 맛을 좌우하는 유산균 번식을 도와준다. 이번 실험에서는 다른 양념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마늘만 남도 마늘과 ‘홍산’ 2종류를 넣어 비교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홍산’ 마늘이 가정에서는 물론, 대규모 김치 제조 공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산’ 마늘을 넣은 김치의 발효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는 이점을 살려 수출 김치에도 ‘홍산’ 마늘이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조달이용 우수고객’에 완주군 선정

유공직원에 군청 재정관리과 이진우 주무관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1년 조달이용 우수고객에 완주군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소속직원 이진우(완주군 재정관리과) 주무관을 유공직원으로 선정하고 이날 조달청장을 대신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조달청은 매년 조달사업 발전과 조달시책에 기여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서비스 이용실적, 조달실적 신장률, 조달사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완주군은 조달청 이용실적이 우수하고 조달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결과 이번에 조달이용 우수고객으로 선정됐다. 또한 유공직원으로 선정된 이진우



주무관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했으며, 특히 조달서비스 이용을 통해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이주현 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